

January 30, 2019

## Global

### GM식품에 대한 높아진 지식은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는 연구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변형(GM) 식품관한 과학에 대해 사람들에게 교육하면 GM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GM 식품을 섭취할 의지가 커지고, 그리고 GM 식품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GM작물과 GM식품은 대중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GM식품에 대한 회의론의 강력하고 유일한 예측인자로서 GM기술의 지식부족에 대한 4가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1과 2는 GM기술에 대한 지식이 일반 과학 지식과 인구 통계학적 통제 보다 이상으로 GM식품에 대한 태도의 유일한 예측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3에서는 GM 특이적 지식의 유일한 예측인자의 가치가 미국,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연구는 5주간의 실험 설계를 사용하여 GM기술에 대한 기초 과학을 사람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지식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GM기술에 대한 과학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GM 식품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분명한 태도, GM제품을 섭취할 의지, 그리고 GM식품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이 낮아졌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GM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개입을 위한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이 GM기술에 대한 기초과학을 전달하고 과학적 지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e-print version](#)

## Asia and the Pacific

##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필리핀 변호사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공학 관련 법률 담론: 필리핀 생명공학 분야의 변호사 참여에 대한 시사점(Legal Discourse on Agri-Biotechnology: Implications to Lawyers' Engagement in Biotechnology in the Philippines)"에 대한 연구결과는 2018년 1월 29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농업 연구 훈련센터(Southeast Asian Regional Center for Graduate Study and Research in Agriculture, SEARCA)의 농업 개발 세미나 시리즈(Agriculture and Development Seminar Series, ADSS) 기간 동안 과학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학계, 국가 및 국제기관/협회, 생명공학 업계들에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SEARCA 생명공학정보센터(SEARCA BIC)와 필리핀 로스바뇨스 대학의 개발 커뮤니케이션 단과대학이(College of Development Communication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ños) 공동으로 연구 한 것이다.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필리핀 변호사들의 이해와 태도를 분석하며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필리핀 변호사들의 참여 의미를 규정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주요 용어(예: 유전자, 바이러스, 황금쌀, GMO 오염 등), 과정 및 국내 농업생명공학 규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 대중에 공개하고, 기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구조화된 규제 절차를 갖추는 등의 적절한 조치 방법들이 제공된다면 식품과 의약품에서의 농업생명공학의 적용을 여전히 선호하였다. 변호사들은 농업생명공학을 흥미로운 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법조계에서 상업적인 분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필리핀에서의 농업생명공학 제품 규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또한 Bt가지 사례와 관련된 법적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판 중에 제기된 법적 논쟁에 근거하여 사법부의 과학적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GM작물의 특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 부족은 2015년 필리핀의 Bt가지 포장시험을 중단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2016년에는 이 결정이 완전히 뒤집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ARCA BIC](#)

## Document Reminders

### 차세대 GM작물: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 한 당분간 동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 차세대 GM작물(So long as you have food in your mouth, you have solved all questions for the time being. So begins Good Enough to Eat?: Next Generation GM Crops)' 이라는 책은 Kafka의 요리의 감성에 도전하고 음식과의 우리의 복잡하고 깊은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책은 식물 분자 유전학 교수(Professor in Plant Molecular Genetics)이자 퀸즐랜드 대학의 작물 과학 센터 소장(Director of Center for Crop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인 Ian Godwin이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왕립 화학 협회(Royal Society of Chemistry)에서 발간하였으며, 농장 울타리의 양면, 생물학자와 농민, 영양사와 운동가, 실험실에서부터 전세계 식사 접시에 이르기까지의 GM식품의 역사를 도표화 한 내용이 담긴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GM작물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논쟁 그리고 세계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쟁 이면에 숨어있는 과학적 지식에 대해 기록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oyal Society of Chemistry](#)